

글순서

여는글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아날로그로 갑니다!	3
이용 안내	5
2025 이모저모	6
잇다 기획프로그램	9
우리 사이, 이런 사이!	
2025 전주산책자	
한 손에 쭉! 엄지로 연주하는 작은 피아노, 칼립바	
속닥속닥 우리집 이야기 단지	
우리는 진북 식구	
知속 전주, 함께 잊知 (제19회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모두가 즐거운 예술 (2025 전주생문동축제)	
제6회 전주시민연극제	
레진아트 거울 키링 ‘나를 비추는 색’	
유대수 작가가 들려주는 판화이야기	
얼쑤! 판소리 기초교실	
공존의 지혜2	
문학나눔 도서 보급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	
노인사회활동 지원	
우리 동네 생활문화 아지트, 전시공간 소소	
맺다 생활문화 동호회	37
나로누림(연극 동호회)	
바투(미술 & 공예)	
싼티 밴드(밴드 동호회)	
어울림(우리춤 동호회)	
O's club(영어동호회)	
황산고전연구회(동양고전 학습동호회)	
여행스케치(펜화 동호회)	
쿵치타치(드럼 동호회)	
딩동댕기타(기타 동호회)	
아리오소 플루트 양상불(플루트 동호회)	
하모니 이공일오(중창단)	
티티파스 밴드(밴드 동호회)	
소리(풍물 동호회)	
블루밍퀸즈(라인댄스 동호회)	
소리울고고장구(고고장구 동호회)	

Talk Talk 영어 회화
하루 끝, 요가
더봄 캘리그라피
오! 즐거운 라인댄스
수목에 반하다, 사군자와 문인화
수요일 오후의 수채화 교실
펜으로 그리는 세상 이야기, 펜화
낭만을 총전해요, 기타교실
이모티콘 만들기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하모니카

언론 속 진북생활문화센터

편집후기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아날로그로 갑니다!



한천수

(진북생활문화센터 센터장)

얼마 전 감기로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진료 대기 순서가 20여 번째로,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실에는 간호사 호명 소리와 기침 소리만 가끔 들릴 뿐 무거운 침묵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호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 의례에 참여한 것처럼 미동도 없이 고개 숙인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어찌 보면 숭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간 특성과는 너무 이질적 풍경인데, 이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지금 여기저기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식사 중에도, 심지어 차도 위 횡단보도를 위태롭게 걷는 행인들에게서도. 손바닥 위 휴대폰을 보는 행위가 환절기 감기보다 훨씬 더 유행하는 거 같습니다.

휴대폰을 많이 보면 ‘거북목이 된다’, ‘눈 노화가 빨라진다’, ‘치매에 걸리기 쉽다’ 등, 각종 경고가 난무하지만 휴대폰이 주도하는 ‘침묵의 의식’ 큰 흐름에 별 지장을 주지는 못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니 디지털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 사이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 같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디지털 기기 영향력이 사람 사이 관계는 물론 일상의 많은 부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흐름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AI 관련 프로그램 개설 요구가 많아지고, 기획 분야에서는 디지털 드로잉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분야에서의 변화는 훨씬 직접적입니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지 경로를 조사해 보니, 예전에는 오프라인 홍보물이 참여자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홍보를 보고 찾아오는 시민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기존 아날로그적 문화와 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는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디지털 문화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활동 방향을 바꿔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 양상과는 다르게 동호회 분야에서는 예전보다 많은 시민과 동호회들이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서로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 이용안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내년도 진북생활문화센터는 디지털 문화로 변화하는 흐름에 아날로그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생활문화를 일상 속 문화와 예술로,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풀어낼 계획입니다. 아날로그라는 단어를 디지털의 상대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취지는 생활문화와 운영센터 본질에 충실히 한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도 기반-성장-확산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는데, 내년에는 서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 단계별 유기적 관계 설정으로 선순환의 생활문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기반(교육분야) : 시민의 일상 문화와 기초 예술 교육
- ▷ 성장(동호회분야) : 기반 과정을 거치고 맘에 맞는 사람끼리 동호회 활동
- ▷ 확산(기획분야) : 성장 과정에 있는 동호회와 함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 및 네트워크 활동 전개



-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치된 도서는 진북생활문화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



교육프로그램 신청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동호회 활동 계획서 및 회원 명단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대관 신청

 대관 가능 일정 확인 후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단순 강습, 종교적, 상업적 영리 목적 대관 제한
- 자세한 대관규정은 신청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전시공간 소소> 전시 관련 문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 요망

구분	기준	금액(원)	사용기준
회의·모임 행사	1회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이용시간 : 4시간· 단위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기본 이용 시간 초과 시, 매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p>※ 어울림과 반올림 공간 이용 시에는 별도 협의</p>





2025 전북 생활문화센터

잇다 | 기획 프로그램

2025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

우리 사이, 이런 사이!



2025년 6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22번 만나고 393명의 친구와 함께했다.

<우리 사이, 이런 사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모여 미술심리 특강도 듣고 디지털드로잉을 배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5개월 동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일상 속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친구, 선생님 등 내 주변 사람들의 특징과 습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탐색했다.

색채심리를 바탕으로 한 백드롭 페인팅과 감정 클레이 조형 등 미술심리 특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에바 알머슨의 동화책 <내 마음이 말할 때>를 함께 읽으며 그리움, 부끄러움, 행복 같은 다양한 감정을 색깔과 형태로 표현해보기도 했다.

학생들은 디지털드로잉 교육을 통해 자신이 관찰하며 느낀 일상의 모습을 캐릭터로 담아냈다. 이 캐릭터에는 아이들만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태블릿과 레이어 개념이 낯설었던 아이들은 5개월간의 여정을 거쳐 자신만의 인스타툰을 완성하는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처음엔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웠는데, 내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더 좋았어요."

-박주하 학생-

"방학되면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여기 나오면 시간이 가치있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뭔가 뿌듯해요!"

-서도현 학생-



'우리사이툰'

22명의 아이들이 5개월간 창작한 인스타툰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 아이들의 일상이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긴 22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26년 달력'

각자 원하는 달을 선택해 그린 달력.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함께 친구들의
생일까지 손수 적어넣은
특별한 달력이 완성되었다.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한
띠부씰 스티커



캐릭터가 새겨진 나만의
수제 도장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캐릭터 키캡 키링



전시회 '우리 사이, 이런 사이!'

기간: 2025년 11월 15일 ~ 11월 28일
장소: 전시공간 소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인스타툰 작품과 제작 과정,
굿즈를 전시하고 관람객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터뷰 영상 & 성과공유회'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고 5개월간의 프로그램 소감을 나누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했다.
11월 22일 성과공유회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영상을 감상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2025 전주산책자

2025년 7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16번 만나고 총 220명이 함께했다.

“산책자가 되어 전주를 직접 돌아보니, 전주에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산책자가 어떤 사랑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황은옥-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많이 알 것 같은데도, 구체적으로 전문가에게 듣고 배우지 않으면

피상적인 상식이나 편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러한 배움에서 느끼곤 한다.

진북생활문화센터의 사려 깊은 프로그램 개설과, 이곳에 가까이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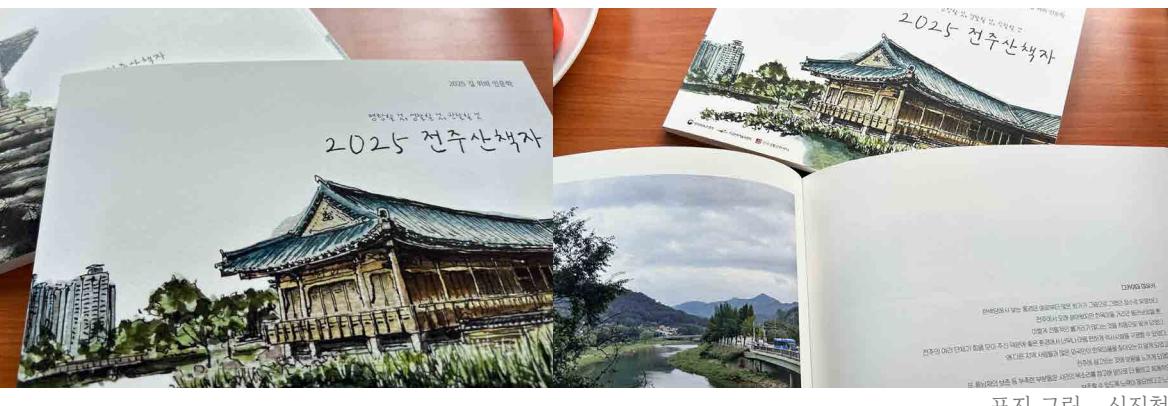
-고광희-

매주 수요일 오후,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시간, 전주산책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게 된 <전주산책자> 프로그램은 '도시를 걷고, 듣고,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배움의 과정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전주의 역사·문학·건축·소리문화를 실제 공간에서 경험하는 탐방형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자료집에는 16주 동안 함께 걷고, 듣고, 바라본 전주의 풍경을 한 권에 온전히 담아냈다.
도시의 기억을 찾아 나섰던 시간들, 강의실과 현장을 오가며 쌓아올린 인문적 시선들,
그리고 참여자들이 직접 쓴 생생한 후기 에세이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표지 그림 - 신진철



김성식 선생님과 첫 번째 탐방 (한벽당-쌍샘광장-오목대당산나무-경기전하마비-전라감영-전동성당)

전주부성의 길을 직접 걸으며 온몸으로 느낀 전주시. 한벽당에서는 정훈 박사님의 깊이 있는 해설이 이어졌고, 이후 쌍샘 광장과 오목대 당산나무를 지나며 전주 원도심의 역사를 되새겼다. 경기전 하마비에서 전라감영까지 둘러보며 도시가 품은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걸어준 이들이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길 위에서 만난 전주는 책으로 배운 역사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다.



최명표 선생님과 두 번째 탐방 (향교-양사재-학인당-고하문학관-초록바위-다가공원)

전주향교에서 출발해 다가공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걸으며 전주의 문학적 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 속 전주는 늘 사람과 풍경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문학산책자’가 되어 걸었던 그 길에서, 우리는 시 한 구절처럼 고요히 이어지는 전주의 시간과 마주했다. 최명표 선생님이 들려주는 전주의 문학 이야기를 실제 현장에서 들으니, 책으로만 접하던 문장들이 눈앞의 풍경과 맞물려 새롭게 다가왔다. 문학이 스며 있는 도시의 정취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허정주 선생님과 세 번째 탐방 (충경사-불정사-남고산성-남고사-만경대)

마지막 회차는 전주팔경 중 하나인 ‘남고모종’을 주제로 한 탐방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충경사에서 출발해 불정사-남고산성-남고사-만경대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전주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찰의 소리를 몸소 느껴보았다. 불정사에서는 스님과의 차담 시간이 마련되어, 차 한 잔을 나누며 사찰이 품은 고요함과 수행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맑은 종소리와 솔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그 순간은 그동안의 전주 산책을 차분히 정리해주었다.

2025 전주시 모두배움터

한 손에 쑥! 엄지로 연주하는 작은 피아노, 칼림바

시즌1 2025년 4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12번 만나고 136명이 함께했으며,

시즌2 2025년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12번 만나고 178명이 함께했다.



'저건 무슨 악기예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면 들려오는 맑고 고운 칼림바 소리에
센터를 찾은 다른 방문객들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악기,
칼림바. 칼림바는 아이와 함께 배워도 좋고,
집에서 가족끼리 연주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려운 부분에서는 다같이 멈칫하며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실수해도 아무렵 상관없다.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도 함께하면
즐거운 도전이 되니까.



“아이 셋을 키우느라 가끔 지칠 때가 있는데 칼림바를 연주
하면서 위로받아요. 금요일 2시 칼림바 수업이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황서영-



“발표회도 있어서 두근두근 준비해 보고 다른 분들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모두배움터 덕에 칼림바를 처음 알았는데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 손녀와 자녀들에게도 선물해 함께 연주
하고 있습니다.”
-배인옥-



속닥속닥 우리집 이야기 단지

2025년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5번 만나고 총 81명이 함께했다.



가족과 함께 창작하며 소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속닥속닥 우리집 이야기 단지>

5주간 한지 판화, 종이죽 공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들은 함께 웃고, 대화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예활동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 그대로 담긴 특별한 추억이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전시 공간에 가족들이 직접 작품을 배치하고 꾸미며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를 완성했다. 완성된 작품 앞에서 뿐듯한 미소로 기념사진을 남기고 끝낸 마지막 시간.



아이들은 처음 만지는 종이죽의 말랑한 촉감에 즐거워하고, 부모님들도 오랜만에 만들기의 재미에 푹 빠져 보냈다. 모두가 즐거웠던 <속닥속닥 우리집 이야기단지>.



가가호호. 가족이 함께하니 더없이 좋다는 말처럼, 함께 만들고, 함께 웃으며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가족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우리는 진북 식구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7월 18일 금요일, 8월 29일 금요일,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인 동호회원들과 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도 즐기고, 식사도 하는 따뜻한 잔치 한마당을 마련했다.



1회차 6월 20일



우리춤 동호회‘어울림의 아름다운 춤사위로 <우리는 진북 식구>의 막이 열렸다.
이어서 소리풀 물 동호회의 장단, 딩동댕 기타반의 따뜻한 기타 선율, 아리오소 플루트 앙상블의 맑은 소리까지 더해져, 첫 회차부터 진북 생활문화센터만의 훈훈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문화가 주식, 즐거움이 반찬!”

2회차 7월 18일



더욱 풍성했던 2회차는 ‘어울림 무용단’의 한량무로 시작해 하모니 2015 중창단, 모두배움터 수강생들의 칼림바 연주, 소리동호회의 풍물 공연, 딩동댕 동호회의 기타 연주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공연 후에는 맛있는 찰밥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눴다.

3회차 8월 29일



기타 중급반 수강생들과 강사 선생님이 함께 했다. 여기에 소리울고고장구팀의 흥겨운 고고장구 공연이 더해졌다. 펜화반 선생님은 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멋진 그림으로 담아주었다.

이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린 <우리는 진북 식구>. 문화가 주식, 즐거움이 반찬! 내년에도 함께하길 바란다.

제19회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知속전주, 함께잇知

2025년 10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펼쳐진 평생학습한마당에서 전주시민들과 진북생활문화센터가 함께했다.



미술동호회 '바투'와 함께 <나만의 티코스터 만들기>부스를 운영했다. 준비된 천 위에 원하는 도안을 올리고, 스펀지로 톡톡. 물감을 찍어 완성하는 나만의 감성 티코스터. 직접 그린 티코스터 한 장에 부스를 나서는 참여자들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진다.

또 동아리 열전에서는 진북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아리오소플루트앙상블의 감미로운 플루트 공연이 함께 했다.



2025 전주생문동축제

모두가 즐거운 예술

2025년 11월 1일(토), 전주남중학교에서 펼쳐진 전주생문동축제에서 전주시민들과 진북생활문화센터가 함께했다.



센터에서는 강정희 탄소중립 강사와 함께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부스를 찾아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은 화분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자의 다짐을 또박또박 글씨로 적어 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기원하며 그 이름을 적기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열정만랩 어울림 동호회원들은 분홍분홍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중앙 무대를 화사한 춤사위로 수놓아 주셨다. 해마다 가을이 깊어지면 돌아오는 전주생문동축제, 내년에 또 반갑게 만나길.



제6회 전주시민연극제

시민이 만드는 연극 축제, 제6회 전주시민연극제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아하아트홀 소극장에서 시민연극동호회가 전주시민을 관객으로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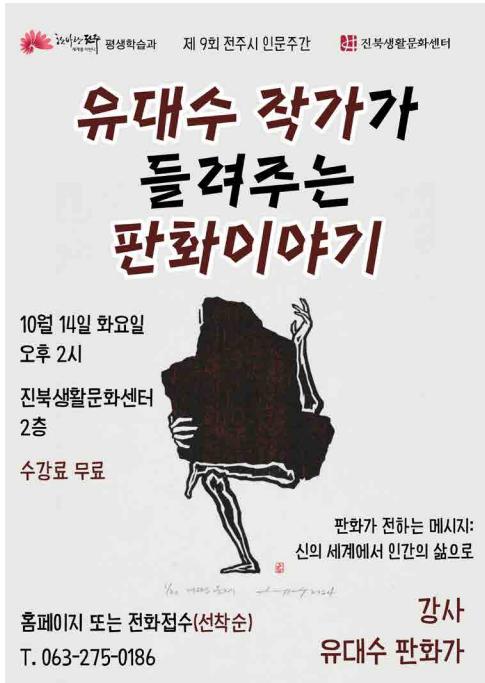
2025 전주시 찾아가는 마을 속 틈새학습

레진아트 거울 키링 ‘나를 비추는 색’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저녁, 스스로의 감정과 취향을 색으로 표현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울 키링을 만들어보는 힐링 워크숍, 레진아트 거울 키링 클래스가 열렸다.



유대수 작가가 들려주는 판화이야기



知則爲眞愛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愛則爲眞看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며
看則畜之而非徒畜也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저 쌓아두는 것은 아니다.
(유한준 1732~1811, 石農畫苑拔)

전주시 인문주간 릴레이 강연으로 센터에서는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삶으로' 내려온 미술을 주제로 유대수 작가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히나 인쇄술에서 시작하여 예술로 확장된 판화 이야기는 작가의 경험담이 곁들여져서 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자랑스런 '완판본체'를 보유한 전주는 판화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스토리가 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예술(작품)이 관람자를 납득시키면 소통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면 널리 회자되면서 유통이 되고, 유통이 늘어나면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한 자리였다.



얼쑤! 판소리 기초교실

2025년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8번 만나고 총 81명이 함께했다.



진북생활문화센터 직원과 센터 이용자가 함께하는 전주시 틈새학습, <얼쑤! 판소리 기초교실>은 우리 소리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부르며 배워보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소리도 주마다 한 소절씩, 한 대목씩 점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변해간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 그 마음이 선생님께도 닿아 마지막 날엔 선생님께서 깜짝 상장 수여식까지 준비해주셨다. 서로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멋진 수료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8주 동안 함께 웃고, 소리하고, 마음을 나누며 판소리의 멋과 흥, 그리고 사람의 온기를 듬뿍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얼쑤! 판소리 기초교실>

<틈새학습으로 택한 판소리 강습에서 흥보가의 박 태는 대목과 눈 타령, 성주풀이 민요를 배웠다. 아니리, 친양조, 휘모리 등 다양한 판소리의 구성과 장단을 흥미롭게 익힐 수 있었다. 흔히 들어본 '흥보가 좋아라고~' 가락의 전체 내용이 어찌 그리 재미있었는지 모른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짚어주며 부분 강습을 연설적으로 해주신 김선미 명창의 교수법이 내겐 안성맞춤이었고 소리풀 물 동호회 언니들과 열심히 배웠다. 판소리 강습 이지만 수강생의 요청을 깊이 헤아리셔서 계절에 맞는 '눈타령' 신민요를 함께 가르쳐 주셔서 더욱 흡족했다. 성주풀이는 김세례나의 민요와 사뭇 다른 판소리를 경한 민요라 가사와 음정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풍물 동호회 회원과 더불어 한울림 동호회 언니들,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인연도 맺은 소중한 프로그램이었다.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니 풍물 연습도 더욱 알차게 엮을 수 있어 행복했다. 다시 한번 짧지만 쉽고 알차게 강습을 이끌어주신 김선미 명창께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가르침을 받을 영광을 기대해 본다.”

- 참여자(소리동호회) 김연주 -



공존의 지혜2 : 인간다움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열 개의 질문

혐오 / 불평등 / 인간 이하
호모 이코노미쿠스 / 복종 / 종말(기후 위기)
자유 / 돌봄 / 선물 / 기억

“배움이란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작은 새싹이 바람과 햇빛 속에서 천천히 자라듯,
스스로를 회복하게 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

가끔은 마음이 향하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좋아함을 한 줌의 빛처럼 귀하게 품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찾아간 매주 목요일, 진북생활문화센터의 ‘2025 지혜학교 <인간다움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열 개의 질문>’에서 나는 작은 새싹처럼 천천히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매번 나에게 물을 건네듯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혐오, 불평등, 인간 이하, 호모 이코노미쿠스, 자발적 복종, 종말, 자유, 선물, 돌봄, 기억이라는 열 개의 키워드 앞에서 나는 마음의 결을 조심스레 헤아리며 사유의 짙을 틔웠습니다.

그 시기 내 마음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향하는 나서는 길에서 느껴지는 묘한 온기는, 내 안으로 스며들어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였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곱씹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은 잠시 쉬어가고, 잔잔한 위로가 마음에 자리했습니다. 매주 그 소중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는 수업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내 안의 새싹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겹쳐지며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천천히 떠올리는 동안, 자연스러운 온기가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움이란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작은 새싹이 바람과 햇빛 속에서 천천히 자라듯, 스스로를 회복하게 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박지현님)



프로그램은 <인간다움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열 개의 질문>에 대한 탐구였다. 현대사회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하고, 불안과 위기의 시대를 함께 살아갈 공존의 지혜를 모색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연속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12회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키워드는 많은 사상가들의 저서와 개념의 지성사를 두루 탐색하는 과정으로 개념의 학습을 선호하는 참여자에게 환영받았다. 또한 인간의 근원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해답을 찾는 과정이어서 인문의 가치와도 매우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욕심냈던 부분은 일상에서 인문을 ‘감각하는 일’이었다. ‘감각하는 일’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 인문을 ‘감각할 수’ 있도록 계속 판을 깔아주는 일 – 센터가 앞으로도 해나가야 하는 역할이다.



강의는 인문공간 파사주의 성기석 대표가 맡아 진행해주었다.

2025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

센터에 새로 나온 시집, 소설, 수필집이 한가득, 읽을 일만 남았네요^^

2024 문학나눔 도서로 신청한 책 100종이 2025년 1월에 보급되어 문학나눔 서가에 비치되었다.

2025 문학나눔 도서는 150종을 신청해서, 2025년 12월 이후부터 보급이 시작된다.

올해는 2025 교양/학술 도서도 125종을 신청했다. 아직 보급처 선정 대기 상태다. 선정되면 더 다양한 책들이 센터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다. 자유 열람 가능, 빌려보고 싶을 때는 사무실에 방문 필수!



2025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 지원 사업,

보급처 선정으로 센터는 오늘도 잡지 맛집!

2025 우수콘텐츠잡지 배포처로 선정되어 매월 15종 이내의 잡지가 배달된다.

잡지는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오래된 잡지는 무료 나눔한다.



2025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어르신에게는 안전, 센터는 쾌적한 돌봄을~

우리 센터는 효자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고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효자시니어클럽에서 파견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센터는

어르신의 돌봄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늘 감사하다. 올해는 네 명의 어르신 도움을 받았다.

2025 진북생활문화센터 공간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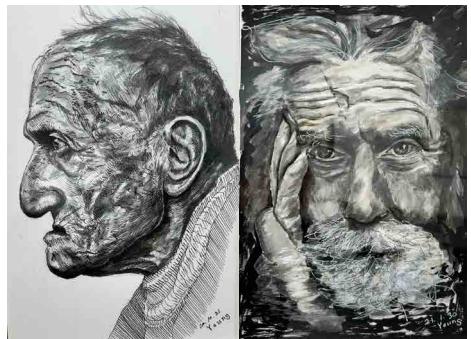
우리 동네 생활문화 아지트, 전시공간 <소소>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전주시민들의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시공간 <소소>에서 29회의 전시가 열렸으며 총 13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2025. 1. 7.~1. 22.

펜화 지도강사 오영석 작품전



2025. 1. 23.~2. 20.

수채화 지도강사 최복 작품전



2025. 2. 21.~3. 7.

캘리그라피 지도강사 소미정 초대전



2025. 3. 10.~3. 15.

전민주 개인전 '풍경'



2025. 3. 17.~3. 29.

양진호 사진전 '우연히, 그 곳에서'



2025. 3. 31.~4. 11.

진북생활문화센터 기획전시 '길, 바람'



2025. 4. 12.~4. 24.

진북생활문화센터 '기획전시: 그리다'



2025. 5. 17.~5. 29.

임대준 초대전: 묵상 -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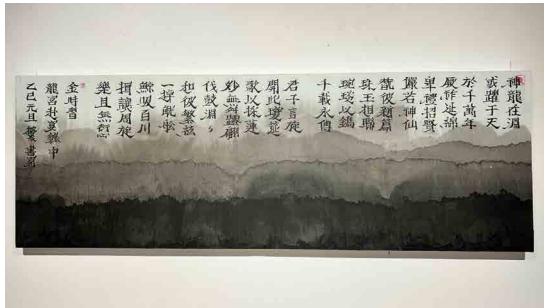
2025. 6. 7.~6. 13.

슬로우아트 단체전 '쉼, 세 번째이야기'



2025. 6. 26.~7. 4.

진북생활문화센터 바투' 여섯 번째 회원전 '느림의 미학'



2025. 7. 26.~8. 8.
2025년 전주미술 동아리전



2025. 8. 9.~8. 14.
2025 가가호호 '속 닥 속 닥 우리집 이야기 단지'



2025. 9. 27.~10. 10.
정세라 도자회화전 '꽃으로 태어난 도자기'



2025. 10. 11.~10. 17.
강정희 두 번째 전시회 '더울 땐 부채지'



2025. 8. 16.~8. 21.
김승호 유묵전



2025. 9. 6.~9. 12.
조채은 개인전 '팔복복기'



2025. 10. 18.~10. 24.
늘봄아뜰리에 회원전 '먹빛동행'



2025. 9. 13.~9. 19.
늘숨, 한 땀의 이야기 '바느질의 기억과 인형의 이야기'



2025. 9. 20.~9. 26.
캘리그라피 글꼴아카데미 8회 정기회원전 '나무에 편 글꽃'



2025. 10. 25.~11. 7.
손바닥 동시 동인 '동심원' 창립기념 시화전 '성스러운 불꽃의 접화'



2025. 11. 15.~11. 28.
2025 꿈다락 문화학교 '우리 사이, 이런 사이!'



2025. 6. 26.~7. 4.
진북생활문화센터 바투' 여섯 번째 회원전 '느림의 미학'



2025. 7. 5.~7. 25.
수묵에 반하다, 한국화 지도강사 유명기 전시회



2025. 11. 29.~12. 12.
맥을 잇는 사람들 '단선부채와의 첫만남'



2025. 12. 13.~12. 19.
오영석 개인전





맺다 | 생활문화 동호회

나로누림 연극동호회

전주 대표 시민연극동호회. 나로누림은 2021 광주전국시민연극제, 2023 · 2024년 두 해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등 연극제 수상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동호회로 8년 이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바투 (미술 & 공예 동호회)

바투는 천 아트, 아크릴화, 전통 한지를 함께 배우고 창작하는 예술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술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서로의 작업을 응원하는 조용한 예술 공동체랍니다. 예술이 처음이어도, 오래해 온 분이어도 환영합니다. 바투에서 창작의 기쁨을 나누어 보세요!

- 동호회 대표 이정희 -



싼티 밴드 밴드 동호회

화요일 저녁 7시, 진북생활문화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조명 아래로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한 얼굴, 가족과의 시간을 잠시 뒤로한 모습, 그리고 음악을 향한 설렘을 숨기지 못한 미소까지 바로 인생의 시작 50대 음악 동아리 '싼티 밴드' 멤버들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이도, 직업도, 역할도 내려놓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연결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50대에 밴드를 한다고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지금이니까 더 좋습니다.” 음악을 처음 잡아보는 사람도, 젊은 시절 밴드의 꿈을 꾸었던 사람도, 오랜 시간 악기를 놓았던 사람도 이곳에서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 앞에서는 누구나 청춘이 되고, 모든 순간은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화요일 저녁, 우리는 연주합니다.삶을 벼텨온 손으로, 서로의 마음이 닿는 음으로, 지난날을 돌아보고 다음 날을 꿈꾸는 소리로.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울려 퍼지는 늦은 저녁의 따뜻한 멜로디 우리는 싼티 밴드,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음악과 함께,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노래합니다.

- 동호회 대표 백병호 -



| 어울림 우리춤 동호회

전통춤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어르신들의 우리춤 동호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르신들은 동호회 활동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지역 곳곳을 찾아가 재능기부 공연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O's club 영어 동호회

함께 모여 한 줄 한 줄 영어 실력을 쌓아가는 영어 학습모임. 오늘따라 문장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공부할 땐 진지하게. 슬기로운 영어 생활, 오스클럽!



| 황산고전연구회 동양고전 학습 동호회

천자문을 바탕으로 사자성어, 한문으로 쓰여진 옛글을 읽는 공부모임이다. 동양철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지금은 14명의 학생이 매주 월요일 오후마다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수업을 듣는다.



| 여행스케치 펜화 동호회

일상 속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붙잡아두고 싶은 기억 있으시죠?
어릴 적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렸었는데 다시 연필과 펜과 물감으로 일상 속 작은 풍경을 내 도화지에 옮겨보
고 싶은 분. 못 그려도 좋아요. 그리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져요. 함께 해보실까요~??

- 동호회 대표 윤경순 -



| 쿵치타치 드럼 동호회

화요일 저녁이면 들려오는 드럼소리. 스틱을 처음 잡아본 이들도 3개월이면 된다. 쿵치타치와 함께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박자를 찾아갈 수 있다. 쿵치타치와 함께 쌓인 스트레스도, 묵혀둔 에너지도 드럼 위에 마음껏 쏟아내 보자.



| 아리오소 플루트 양상블 플루트 동호회

완벽함보다는 따뜻한 음악을 만들고 싶은 아리오소 플루트 양상블입니다. 서로의 소리를 맞추며 즐겁게 연주하는 기쁨을 느끼고, 함께 웃고 격려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자신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 정기 연주회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 종무 이세정 -



| 딩동댕기타 기타 동호회

인생은 딩동댕.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실컷 연주 연습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기타동호회다. 올해는 센터에서 진행한 <우리는 진북 식구> 행사에서 두 번의 공연을 선보였다.



| 하모니 이공일오 중창단

"우리끼리 하모니" 중창단을 소개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음악이라고 하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며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중창단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 동호회 대표 문효순 -



| 티티파스 밴드 밴드 동호회

밴드 이름 ‘티티파스(Titipas)’는 멤버들이 어린 시절 사용하던 크레파스 브랜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티티파스’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그때의 순수한 창작의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지금의 음악 활동 속에 그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밴드 이름 또한 ‘티티파스’로 정했습니다.

티티파스의 음악은 특정 장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쿠스틱의 따뜻함, 록의 에너지, 재즈와 블루스의 감성 등 다양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고정된 장르보다 순간의 감정과 흐름을 중시하며, 그때의 분위기와 영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음악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접근은 티티파스만의 고유한 ‘음악적 색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티티파스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음악을 통해 듣는 이의 마음속에 하나의 풍경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 풍경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음악이 가진 힘을 믿고, 그 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티티파스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펼쳐지는 티티파스의 음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운드를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감성 풍경이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 동호회 대표 백병호 -



| 소리 풍물 동호회



소리동호회는 평균나이 72세입니다.

회원들은 처음 장구를 접하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도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재미를 느껴 무척 흥겨워하고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삶에 즐거움과 행복이 공존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틀려서 웃고, 잘되었다고 웃고, 서로 공통점이 있는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깔깔대며 놀 수 있음이 지상낙원이지 않을까요? 잠시 근심 걱정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우리 소리동호회와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진북생활문화센터 직원들은 물론 우리 동호회 식구들은 가족같은 분위기가 장점이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들겨 주시면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파이팅!

- 동호회 대표 노순자 -



■ 블루밍퀸즈 라인댄스 동호회

블루밍 퀸즈는 라인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된 동호회로, 현재 1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동호회 대표 정수현 -



■ 소리울고고장구 고고장구 동호회

일명 박서진 장구라고 불리는 고고장구는 장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장르이다. 소리울 고고장구 동호회는 무대 위에서 의상도 맞추어 입고 신나는 장단과 함께 공연을 선보인다. 관객과 함께 흥을 나누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나 | 교육 프로그램

Talk Talk 영어 회화

월요일 오전 10시-12시 / 김미소 강사 / 연중 운영

톡톡 영어회화'는 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input)으로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output)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 기반 성인 영어수업.

이 수업은 단순 문법·단어 암기보다 의미 있는 내용(content)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사회문화적 현상, 일상적 이슈, 예술·여행·가족·지역사회와 같은 실질적인 주제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 중심 활동(Task + Interaction)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루 끝, 요가

월·목요일 저녁 7시-8시 / 이승하 강사 / 연중 운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수련할 수 있는 요가 수업이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롤링, 앓은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순서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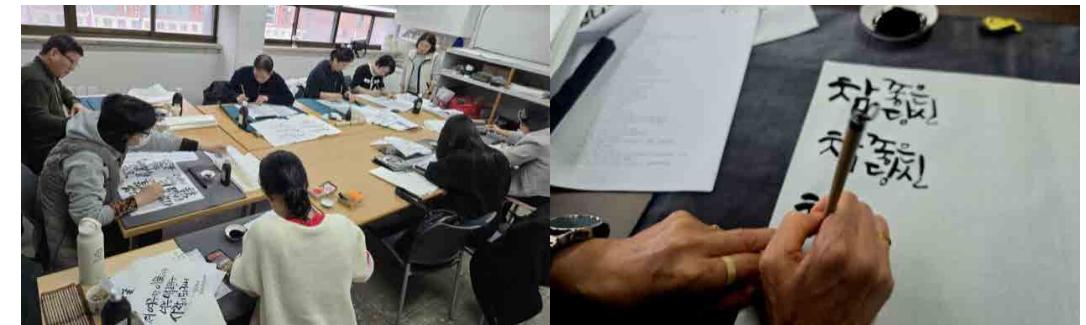
전 연령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족단위로 참여해도 좋다.



더봄 캘리그라피

화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 소미정 강사 / 5개월 과정, 연 2회 운영

캘리그라피는 붓이나 펜, 종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감성과 개성이 넘치는 손글씨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다 보니 자격증 취득에도 관심이 높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이 함께 서체 연습을 하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며 자기 계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체 연습부터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공예활동, 자격증 취득까지 4~5개월 소요.



오! 즐거운 라인댄스

화요일 오후 2시-4시 / 이혜진 강사 / 기초과정 운영

라인댄스는 같은 음악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으로 모든 연령대가 가능한 장르다. 기초 스텝부터 배우고 음악에 맞춰 모션과 스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를 배운다. 이는 비만과 체력 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음악과 함께 여럿이 율동을 하며 마음의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어서 건강댄스로도 최고. 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신나는 음악에 맞춰 산뜻하게 일상을 가꾸는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하다.



수묵에 반하다, 사군자와 문인화

수요일 오전 10시-12시 / 유명기 강사 / 기초과정 운영

우리 전통 회화에 담겨 있는 고아한 정신, 멋과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수업이다. 우리 그림을 제대로 보는 감상법과 정확히 읽어내는 문예적 소양을 기르고, 마음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즐기는 단계로 나아간다. 수강생들의 기술적 표현력 향상에만 주력하지 않고 문화적 감수성과 안목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매력만점 프로그램이다. 기초 중심의 6개월 과정이지만 숨은 고수를 위한 맞춤 지도 가능한 수업으로 운영. 또한 전통적 표현법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하는 시도를 병행하고 성과물을 공유하는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다.



수요일 오후의 수채화 교실

수요일 오후 2시-4시 / 장문갑 강사 / 기초과정 운영

“
바쁜 일상 속,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
수채화를 그리려 오세요.
”

수채화 교실이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됐다. 처음 붓을 잡는 초보자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드로잉 기초부터 물의 번짐, 색의 조화, 빛과 그림자의 표현법까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기본기를 배우고 나면 서툴더라도 나만의 감성 가득한 수채화로 화폭을 채울 수 있다. 수채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맞춤인 수업. 바쁜 일상 속, 고요한 쉼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 속으로 스며들기 딱 좋은 수요일 오후, 수채화 교실로 오시라.



펜으로 그리는 세상 이야기, 펜화

수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 오영석 강사 / 기초과정 운영

수요일 오전 10시-12시 / 채색과정 운영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풍경그리기 운영

센터에서 펜화 수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3년째. 수강생들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적으로 접할 수 있다. 단계마다 4~6개월이 소요된다.

드로잉의 가장 기본적인 선긋기부터 명암표현, 형태 잡기 등 드로잉의 기초를 탄탄히 ▶ 단색 펜화 위에 수채물감, 색연필 등 채색 도구를 활용해 그림에 생동감을 입히기 ▶ 투시 원리를 바탕으로 집, 건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본 뒤 우리 주변의 친숙한 풍경들을 직접 관찰하고 나만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펜과 종이만 있으면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매력만점 그림 수업이다.



처음 연필을 잡았을 때의 초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때 제가 느꼈던 몽입이 주는 마음의 안정을
수강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영석 강사)



낭만을 충전해요, 기타교실

수요일 오후 2시-4시 / 정경수 강사 / 입문자를 위한 초급과정 운영

목요일 오후 2시-4시 / 실력 향상을 위한 중급자 과정 운영

낭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감성의 진수! 바로 기타 연주다.

언제 어디서나 추억을 길어올리는 기타 연주의 매력은 세대를 불문하고 마음을 설레게 한다. 센터에는 기타 입문자를 위한 초급과정과 실력 향상을 위한 중급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쿠스틱 기타 연주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때에 따라 기타 주법과 노래도 배울 수 있다. 배우는 데 그치면 재미가 없다. 갈고 닦은 실력을 뿐만 아니라, 센터 동호회들이 숙씨 자랑할 때 기타교실 수강생들도 함께 멋지게 해낸다.



이모티콘 만들기

목요일 오후 7시- 8시 30분 / 이모티콘 창작자 과정(2개월 소요), 연 5회 운영

| 교육 프로그램 |

이모티콘 만들기

이모티콘 작가 범고래와 함께 하는
이모티콘 만들기 8주과정
근데더기 없이 이모티콘 창작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과정만을 공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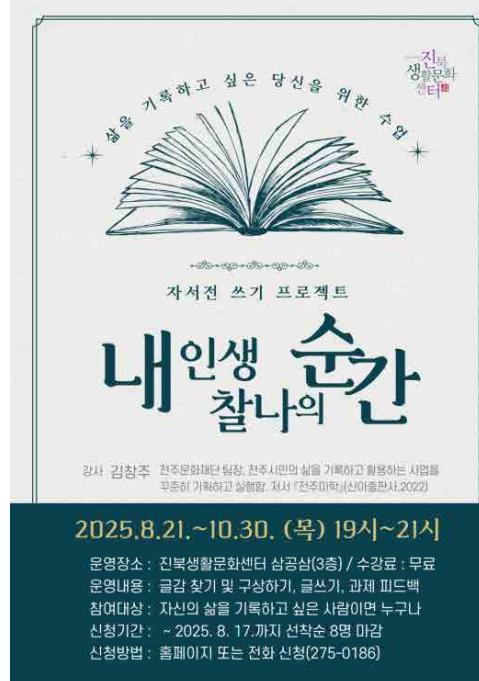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은 군더더기 없이 이모티콘 창작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과정만을 골라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이모티콘 시장에 대한 설명부터 기본 원리 교육, 콘티 짜기, 멘티+움티 제작 실습, 플랫폼 심사 제안, 수익화 전략까지 모두 풀어놓는다.

카카오 이모티콘 작가인 강사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을 전수한다. 올해 5기까지 진행되었다. 수강생의 창작 캐릭터가 시장에 나오면 언제든 연락 주시라. 센터 SNS로 홍보 쏘아드리다!

<시민강사 발굴 프로그램>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내 인생 찰나의 순간

8.21.~10.30. 목요일 오후 7시- 9시(총 10강) / 김창주 강사



누구나 비슷한 듯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 그 특별한 조각들을 모아 엮어보면 삶이 결코 심심하거나 빛밋하다고 말하기 미안할 만큼 반짝거리고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자서전 쓰기의 수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다.

자서전 쓰기는 시민강사 발굴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전주미학』의 저자이자, 전주문화재단에 근무중인
김창주님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무료 수업이다.

“강의를 할수록 내가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다, 다음 시간엔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에 마음이 들떠요. 재밌어요. 다음에 짜짜 더 잘 할 수 있어요.”(김자주 강사)

강사도 수강생도 배움이 많았던 시간이다. 부족함을 메우고 더 나아가는 일, 배움의 큰 가치가 여기 있다.

하모니카

월요일 오전 10시-12시 / 전설 강사 / 1~2월 중급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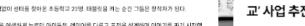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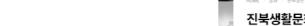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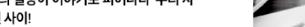


하모니카 중급과정이 올해 2월까지 운영되다가
동호회로 전환되었다. 실력도 짹짱하니 이제
센터를 벗어나 공연이나 봉사활동에 욕심을
내도 좋을 것 같다.

“모임에 갔는데 다들 장기자랑을 해.
나는 할 게 없어서 뭐 하지, 뭐 하지 하다가
가방 속에 하모니카 있는 게 생각나서
아는 곡 하나를 불었어. 나는 발발 떨렸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니까
기분이 차 좋더라.”

金羅日報

HOME 문화 문화 전시



편집후기

편집위원장 오영석

가장 익숙한 곳에서, 고마운 마음을 짓다

저에게 진북생활문화센터는 단순히 강의를 하러 오는 곳,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사라는 이름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던 설레는 출발점이었고, 지금도 일주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행스케치’ 회원분들과 그림을 그리고 소통하는 제 삶의 든든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지『짓다』의 편집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 제가 한 일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밤낮으로 애써주신 사무실 직원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네 이야기가 이토록 근사한 한 권의 책으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없은 마음으로, 완성된 기록들을 보며 센터 곳곳에 스민 흔적들을 다시금 확인할 뿐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센터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한천수 센터장님, 저에게 이곳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처음 제안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진이 실장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송지연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강사와 수강생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팬을 들고 풍경을 담으며 여러분과 소통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그림과 작은 활동들이 제가 아끼는 이곳, 진북생활문화센터가 나아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항상 바랍니다.

편집위원 김규진

지난 1년간의 다양한 활동 기록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간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오면서 센터의 단편적인 면을 봐왔다면, 이번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시민이 모이고 배우고 실연까지 하는 복합공간이라는 점이 다시금 와닿았습니다. 전주 시민 모두가『짓다』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김연주

『짓다』의 편집 목적과 과정을 돌이켜보며 서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가 신선했다. 센터에서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며 발표회에 참여하는 회원으로서, 처음 편집에 참여하다보니『짓다』에 큰 애정이 샘솟았다. 센터의 발전 모습이 고스란히 스며든『짓다』(통권7호)가 탄생할 수 있게 원고도 수집하고 기고할 수 있어 행복했다.

편집위원 김창주

2025년 진북생활문화센터 자료집『짓다』를 편집하는 과정은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고를 수집하고 기고한 글 검토하며『짓다』에 큰 애정이 샘솟았고, 각자의 일상과 경험이 모여 더 큰 의미를 만들어 가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가 디지털 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아날로그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생활문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힘써 주신 편집위원들과 참여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 자료집은 더욱 따뜻하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백병호

진북생활문화센터 자료집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일상과 경험이 모여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고, 그 안에서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북생활문화센터장님과 함께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힘써 주신 편집위원들과 참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이번 자료집을 더욱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2025 진북생활문화센터 짓다 (통권 7호)

발행일 2025년 12월 22일

발행처 진북생활문화센터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전화 063-275-0186

홈페이지 <http://www.jeonjuculture.or.kr/jinbuk>

발행인 한천수

편집위원 (위원장)오영석, 김규진, 김연주, 김창주, 백병호

사무국 박진이, 송지연

2025 진북생활문화센터『짓다』는 진북생활문화센터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